



4면

고교 교육력 제고방안 논의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2월 13일 월요일 (음 1월 23일) 제3201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현대중 군산조선소 선박 블록 본격 양산

약 10만 톤 생산 목표
군산조선소 생산 블록
울산조선소로 해상운송
컨테이너선 건조에 활용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첫 블록 출항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올해 목표인 약 10만 톤의 선박 블록 양산에 돌입했다. (관련사진 2면)

지난 10일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출항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운천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신영대 국회의원, 권오갑 HD현대 회장, 강입준 군산시장,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김관영 도지사, 이창양 산업부 장관, 권오갑 HD현대 회장 등 주요 내빈들이 행사장에 마련된 퀴빈실에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덕담을 나누는 환담으로 시작했다.

군산조선소에서 생산된 블록을 선적하고 운송을 시작하는 물안에서 진행된 행사는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환영사, 김관영 지사의 축사, 현대중공업이 준비한 블록생산 관련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출항식은 김관영 도지사, 이창양 산업부 장관, 권오갑 HD현대 회장 등 9명이 무대에서 버튼을 누르면 블록을 실은 선박이 뱃고동 소리를 내며 출항하는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특히 퍼포먼스에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따라 5년여만에 고향인 군산으로 돌아온 근로자 1명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국가적으로는 정부의 친환경 선박 전환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해군과 해경 환경의 정비와 성능개량을 통한 전력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는 특수선 중심의 지속가능한 조선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이 매우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이어 "1970년대에 현대중공업이 울산 미포만의 황량한 백사장에서 세계 최대의 조선사로 성장한 기적을 전라북도가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를 통해 군산의 기적으로 재현해 내겠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행사는 전북 조선산업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일자리를 잃고 떠났던 도민들이 돌아오고 주변 상권이 회복되는 등 지역경제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며, "군산조선소가 연매출 1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군산 산업의 24%를 차지했던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현대중공업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조선소에서 생산한 블록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로 해상운송되어 컨테이너선 선박 건조에 쓰일 예정이다.

그동안 김 지사는 새만금신항 1단계 조기 구축 및 재정사업 전환,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건설,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 사업,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및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등을 건의했다.

또한,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추진 및 수상태양광 1단계 신속 추진, 국립 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자산운용 관련 공공기관 우선 배치 등 11건에 대하여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에서 추진 중인 숙원사업들을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하고 꼼꼼하게 챙기겠으며, 특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와 글로벌 푸드허브 구축 사업,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등을 정부가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전북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전북의 조선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외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올해 1,400억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훈 기자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포함한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소통·협력으로 '지방시대 실현'

전북서 개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 관련기사 3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 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 등 심의
지방시대 실현 위해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중앙 권한지방이양 계획 심의도 진행

김관영 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적극 지원해 준 것에 깊은 감사"

중앙과 지방에서 제안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주요 과제가 전북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심의됐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포함한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회의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및 기재부·행안부 등 중앙부처 장·차관,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경제수석 및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먼저, 지방안전 발발·조정 역할 분담을 위한 지방지원단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 계획'과 인구감소지역을 지역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에 포함하는 '지역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에 대해 심의했다.

또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직구성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저출생·수도권 집중으로 지

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치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지역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계획'에 대한 보고와 심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전북에서 개최하게 된 것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인구증감과 관계없이 지역의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복잡·다양해진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균형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인구수 기준이 아닌 지역특성 등을 감안해 행정기구 설치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또 "6개 분야 57개 과제에 대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계

획에 혁신적인 방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시간이 많아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신속하게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의 원전 비중 조정과 수출 주도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전북은 RE100 실현을 위한 국내 최초의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험산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탄소중립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마지막으로 "오는 5월 개최되는 2023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와 8월 개최되는 2023 새만금세계잡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세이공제, 답례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부하고 혜택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남원시를 응원해주세요

남원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쉽고, 편리하게
남원을 사랑하는 마음, "고향사랑 e음"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www.ilovegohyang.go.kr

문화의 남원
미래산업도시 남원 http://www.namwon.go.kr